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21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 자치협력팀장 • 담당자	이정화 김선미	☎440-2431 ☎440-243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새마을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
- 새마을운동 제창 53주년 및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 새마을지도자 등 350명 참석 -

인천광역시새마을회(회장 김의식)는 4월 21일(금) 15시 중구 하버파크호텔(중구 제물량로 217)에서 제1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새마을의 날’은 1970년 4월22일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유정복 시장, 허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새마을지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지도자 10명에 대한 시장 표창 수여에 이어 새마을운동 발전에 기여한 30년 근속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기념장 수여 및 평가 우수지회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 마지막 순서로, 인천시새마을회 김의식 회장이 단체를 대표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선언식’을 갖고 국제회의 인프라를 갖춘 인천이 개최 도시로 최적지임을 밝히며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의식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번영을 위해 청년층 참여 확대를 통한 세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배려와 존중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과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사회,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근면·자조·협동의 기본정신과 생명·평화·공경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당부하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 (<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